

격려사

유원곤 (보건복지부 암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호스피스에 종사하는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기쁘고 반갑습니다. 우선 한국호스피스협회 추계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호스피스협회는 1953년에 한국에 와서 일생을 우리 국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헌신하다가 은퇴한 간호사요, 교수였던 왕매런(Marian Kingsly) 선교사에 의해 1992년에 조직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교 사역의 마지막 사업으로 세브란스 호스피스를 조직, 운영하였던 왕매런 교수가 은퇴하기 직전에 한국의 호스피스 종사자들이 서로 교류하고 호스피스 사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장을 만들려는 의도였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은퇴한지 10년이 되었고, 그분에 의해 시작된 한국호스피스협회의 나이도 열한 살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호스피스 기관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나고 가톨릭호스피스협회와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호스피스교육연구소 등이 생겨나기도 하였으며 한국호스피스협회 역시 50여 개의 산하 단체와 지역별, 직능별 조직을 갖춘 민간단체로 발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호스피스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호스피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인간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한국인들이 많다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말기환자와 가족을 돕고자 애써오신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호스피스는 말기환자와 가족을 전인적으로 돕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해 동안 사망하는 국민의 수가 약 25만 명에 달하며, 그 주변 가족이나 친지의 수를 사망자 1인당 평균 10명으로 추산해도 약 250만 명 이상이 매년 죽음의 고통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중 1/4 이상이 말기 암과 같은 불치의 병으로 심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고통 속에서 외롭게 죽음을 맞고 있습니다. 호스피스는 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꺼져 가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생명 존중활동입니다. 호스피스는 의료인과 비의료인, 성직자가 한 팀이 되어 생의 마지막 순간을 사는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살다가 갈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남아있는 시간이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돕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위엄을 지키며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때문에 정부는 내년부터 약 3년 동안 「말기암환자를 중심으로 한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실시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호스피스가 정착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2002 정기총회와 추계세미나 및
제6회 인증시험 보고서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인간의 생명을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길이 간직하시어 계속해서 멋있는 호스피스 사역과 연구활동을 계속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호스피스가 여러분들과 한국호스피스협회와 함께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한국호스피스협회 추계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금부터 진행 될 "호스피스와 생명윤리," "호스피스와 인간의 존엄성," "호스피스와 의료생명윤리" 등 소중한 발표를 통해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고 학술대회 또한 성공리에 마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책 속으로...

죽어가는 사람의 꿈은 아주 중요할 수 있다. 특히 생생한 꿈. 되풀이해서 꾸는 꿈, 또는 연속적인 꿈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죽어가는 사람이 당신에게 꿈 얘기를 하는 건, 느낌이 경멸하거나 궁금한 게 있는데 자기로서는 알 수 없는 뭔가를 두고 고심하는 것일지 모른다. 그에게 자세 히 얘기해 달라고 하고, 주의 깊게 들어라. 그에게 그 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되, 당신 자신이 해석하려 들지는 마라. 그 사람 스스로 꿈 이면의 느낌을 확인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좋다.

메기 캘러닌 · 페트리샤 캘러의
『마지막 선물』 중에서

지난 10월 5일(토)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강당에서 본회 2002 정기총회와 추계세미나, 그리고 제6회 자원봉사 자격인증시험이 800여명의 내·외빈의 참여와 함께 성황리에 마쳐졌습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지난 2년 동안 본회를 대표하는 회장으로서 많은 일들을 감당해 오신 김수지(이화여대 간호대) 교수가 새로운 회장으로 연임하게 되었습니다. 부회장과 총무를 비롯한 임원진들의 임명에 관해서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호스피스와 생명윤리’라는 주제로 열린 추계세미나는 전재규 이사장의 개회사, 보건복지부 유원곤 과장(암관리과)의 격려사로 시작하여, 전재규(계명대 의대) 교수, 손봉호(서울대 사범대) 교수 등의 주제발표 (호스피스와 생명윤리, 호스피스와 존엄사, 호스피스와 의료생명윤리)와 토론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호스피스는 말기환자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대안이 될 수 있는지, 호스피스와 인간의 존엄성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호스피스에서의 치료 패러다임의 변화와 의료생명윤리와의 관계는 어떤지 등, 호스피스 활동과 생명윤리의 문제를 다양하고도 폭넓게 다룸으로써,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호스피스 활동이 생명윤리의 문제에 어떻게 접근되어 있는지를 살펴본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발표한 호스피스 제도화 문제에 대해서 본회 회원 모두의 입장을 대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 회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